

#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합산과세는 필요 없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이들 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① 이자소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② 배당소득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① 거주자

개인(자연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 ②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데,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비교과세방법

① (2천만원×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여타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

② (금융소득×14%\*) + (여타종합소득금액×기본세율)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세율(예 : 비영업대금 이자는 25%)

①·② 중 큰금액으로 산출세액 계산함.